

영어의 강조 표현과 그 번역 기법

김 정 우
(경남대학교)

1. 머리말 -글쓰기와 강조 표현-

우리는 글을 쓰거나 말을 할 때, 반드시 어딘가에 특별히 힘을 주어서 표현하게 된다. 그러므로 모든 문단에는 하나의 핵심적인 내용이 담기게 되며, 이들 문단의 핵심 내용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글 전체에도 역시 하나의 중심 주제가 담기게 된다. 이른바 핵심 문장(key sentence) 내지 핵심 단어(key word)의 내용이 바로 문단의 핵심 내용이 되는 것이다. 물론 논의의 초점을 문단 차원에서 문장 차원으로 좁히더라도, 이와 같은 개념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¹⁾ 다음의 예문을 검토해 보자.

(1.a) 때마침 좋은 소식을 들어서 그런지, 집을 나서는 발걸음은 한결 가벼웠다.

(1.b) 때마침 좋은 소식을 들어서 그런지, 한결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을 나섰다.

1) 본고는 문장 차원의 강조에 대한 논의를 위주로 전개된다.

위의 두 예문은 언뜻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처럼 읽히지만, 조금 더 유의해서 음미해 보면 행간의 어감(nuance)이 다르다는 사실을 감지해낼 수 있다. 예문 (1.a)에서는 ‘한결 가벼웠다’는 내용이 독자의 머리에 남는 반면, (1.b)에서는 ‘집을 나섰다’는 내용이 머리에 남기 때문이다. 달리 말한다면 전자에서는 동작주의 심리 상태에 글쓴이의 초점이 놓여 있는 반면, 후자에서는 동작주의 동작에 글쓴이의 초점이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말에서 핵심적인 정보가 담긴 서술어(=동사)가 문장의 말미에 오는 어순 배열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문장의 말미에 오는 요소일수록 강조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물론 영어에서도 이와 같은 위치에 따른 강조 현상을 확인하는 일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 아래의 예문을 보자.

(2.a) For 100 years Hulbert's family has lived in Seoul.

(2.b) Hulbert's family has lived in Seoul for 100 years.

장소나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어가 문장의 말미에 놓이는 일반적인 영어의 어순과 비교해볼 때, 위의 예문 (2.a)는 부사어 ‘for 100 years’의 위치가 특이하게 보인다. 위의 예문 (2.a)를 쓴 필자는 바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영어 원문에 나타난 이와 같은 강조 표현은 번역문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 당연히 우리말 번역문에서도 원문 필자의 강조 의도가 드러날 수 있도록 표현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위의 예문 (2.a)를 번역한 아래 우리말 번역 용례 중에서 (3.a)가 (3.b)보다 정확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다.

(3.a) 헐버트 일가가 서울에서 산 지도 벌써 100년이나 된다.

(3.b) 헐버트 일가가 서울에서 100년째 살아오고 있다.

위의 예문 (3.a)를 보면, 부사 ‘벌써’라든가 보조사 ‘-이나’ 등이 시간 부사를 강조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영어 원문에 의미상으로 강조되는 표현이 있다면, 어디가 어떻게 강조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를 번역문에 정확하게 반영해주어야 좋은 번역이 될 수 있으리라는 일반론을 수립할 수 있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실무 번역의 관점에서 영어 원문에 담겨 있는 강조 표현의 제

반 양상을 확인해본 다음, 이를 우리말 번역에 온전하게 살려낼 수 있는 번역 기법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이는 원문과 번역문의 등가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2. 강조 표현의 제반 양상

일반적으로 구어에서는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을 다른 부분보다 강하고 분명하게 발음함으로써 의미상의 강조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억양(intonation)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 다음 예문처럼 의미가 달라진다(굵은 글자로 표시된 어구가 강조된 부분이다).

(4.a) Mrs. Brown is over sixty.

(4.b) Mrs. Brown is over sixty.

(4.c) Mrs. Brown is over sixty.

위의 세 예문은 표면상 동일한 단어 재료와 배열 순서를 보이고 있지만, 얹히는 강세에 따라 필자의 표현 의도는 사뭇 달라지게 된다. 말하자면 분절음소(segmental phonemes)의 배열은 동일하지만 초분절음소(suprasegmental phonemes)의 기능이 상이하기 때문에 개별 문장의 의미 값어치도 상이하게 된 것이다. 초분절음소의 존재를 감안한 상태에서 위의 예문을 읽어보면, 개별 문장에서 핵심이 되는 의미가 드러나게 되는데, 이를 차례대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4.a)에서는 ‘남편이 아닌 부인’이 예순을 넘었다는 의미가 읽히고, (4.b)에서는 ‘다른 사람이 아닌 브라운 부인’이 예순을 넘었다는 의미가 읽히며, (4.c)에서는 ‘나이가 무려 예순을 정말로’ 넘었다는 의미가 읽힌다. 이는 아래의 예문 (5)처럼 각각의 예문에 상응하는 의문문을 상정해보면 더욱 확연하게 그 의미가 드러난다.

(5.a) Is it Mr. or Mrs. Brown that is over sixty?

(5.b) Who is over sixty?

(5.c) Is Mrs. Brown really over sixty?

결국, 구어에서는 의미상으로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빠르고 가볍게 발음하는 반면, 의미상으로 중요한 부분을 강한 억양으로 발음하기 때문에, 화자가 어떤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지 듣기만 해도 어렵지 않게 알아차릴 수 있다.

그런데 초분절음소를 표시할 수 없는 활자로 인쇄된 책은 기복이 없는 문자가 선형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²⁾, 글쓴이가 강조하는 부분이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게 되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필자 역시 여러 가지 기법을 동원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을 독자에게 전달하려고 노력하게 된다. 그러므로 번역자는 이와 같이 원문에 내재된 강조 표현을 정확하게 읽어내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영어 원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강조 표현의 기법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부류로 분류가 가능하다.

2.1. 통사론적 요소에 의한 강조

가장 전형적인 강조 표현의 방식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강조 구문이다. 이는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을 독립시켜서(dislocated) 두드러지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흔히 *It - that* 강조 구문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다음에 용례를 제시해 본다. 아래 예문 (6)에서는 문장의 다른 부분과 격리된 2인칭 대명사 ('you')가 강조되어 있다.³⁾

(6) It's you (that) I want to talk with.

한편 화자의 의도를 담은 조동사(should)를 사용한 강조 표현도 있는데, 이는 불어나 스페인어에 보이는 일종의 접속법에 비견될 만한 구문이라고 하겠다. 아래 예문 (7)에서도 화자의 안타까운 심리 상태가 조동사를 통해서 표현되고

2)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초분절음소인 방점(傍點)을 표기했던 훈민정음의 특이성은 세계 문자의 역사에서 이채롭기까지 하다.

3) 위에서 본 *It - that* 강조 구문처럼 특별히 강조 구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지는 않지만, 강조 효과를 노린 문장은 많이 있다. 예컨대 'That's what I want to know.'과 같은 문장도 문장 맨 앞의 목적어(that)를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다(이 문장은 후술되는 도치의 일종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문장은 '바로 그 일이야, 내가 알고 싶은 것은.' 정도로 옮길 수 있겠다.

있으므로, 심리 상태가 강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7) It is a pity that he should miss such a golden opportunity.

다음으로 상관접속사 구문을 사용한 강조 표현이 있는데, 이는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을 주절에 배치하고 주절과 종속절을 상관접속사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아래 예문 (8)에서도 ‘내가 조국을 사랑한다’는 주절의 내용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8) As you love your country, I love my country.

이와 같은 병렬 표현에 의한 강조의 효과는 그렇지 않은 문장과의 대비에서 선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아래의 두 예문에서 병렬 표현을 사용한 (9.a)와 그렇지 않은 (9.b)를 비교해 보면, 동일한 수식의 기능을 수행하는 세 어구를 동일한 형식(형용사)으로 처리한 (9.a)에 비해서, 각각을 형용사와 부사구 등으로 산만하게 처리한 (9.b)는 강조되는 ‘집’의 특성이 일목요연하게 들어오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병렬 표현의 사용도 강조 구문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9.a) Choose a house that is spacious, sunny, and attractive.

(9.b) Choose a house that is spacious, with a good exposure to the sun,
and that people like to look at.

마지막으로 동일한 표현 값어치를 갖는다는 전제가 성립된다면, 수동태보다 능동태를 사용하는 편이 전반적으로 직접적이고 강력한 느낌을 준다. 아래 두 예문을 비교해 보면, 곧 그 차이를 감지해낼 수 있다.

(10.a) Everybody had a good time.

(10.b) A good time was had by all.

2.2. 형태론적 요소에 의한 강조

강조의 의미를 더해주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일정한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방안으로도 강조의 표현이 가능하다. 아래 예문 (11)에서는 강조를 위한 부사의 용법을 확인할 수 있다.

(11.a) She is very/so beautiful.

(11.b) He was terrifically frightened.

한편 단순히 강조의 형용사나 부사를 사용하기보다 형용사구나 부사구를 사용한 문장은 독자에게 깊은 인상을 주어 더욱 높은 강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아래 예문 (12.b)와 비교해볼 때, (12.a)가 그러한 용례에 속한다.

(12.a) To most people Mary is a beautiful girl.

(12.b) Mary is a most beautiful girl.

단어의 반복도 마찬가지로 강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아래 예문 (13.a)에서는 동일한 단어(parents)가 반복되었고, (13.b)에서는 문장의 주요 성분 거의 대부분이 반복되어 있다.

(13.a) Before parents can be parents they must have lived a good part of their lives.

(13.b) We shall fight in France, we shall fight on the seas, we shall fight in the air, and we shall win.

2.3. 어순의 변화에 의한 강조

정상 어순을 이탈한 어순 배열도 강조 표현으로 널리 사용되는 하나의 방안이다.⁴⁾ 일반적으로 도치법(inversion)이라고 불리는 표현 방식이다. 긴 문장에서는 먼저 문장 끝 위치가 두드러지고 다음으로 문장 머리 위치가 가장 두드러

4) 여기서 말하는 어순은 문장 안의 단어 배열 순서를 말한다. 다음 III장에서 말하는 단락 안의 문장 배열 순서와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지므로 그 위치에 강조하고자 하는 단어를 놓는다. 크게 중요하지 않은 수식어와 설명 부분은 문장 중간에 삽입한다. 아래 예문은 성분 도치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용례들이다.

(14.a) Him they elected their president.

(14.b) They elected him their president.

(15.a) Deceit or treachery he would never forgive.

(15.b) He would never forgive deceit or treachery.

(16.a) Through the valley flowed a winding stream.

(16.b) A winding stream flowed through the valley.

(17.a) The student who cheats in an examination is, in the final analysis, cheating only himself.

(17.b) The students who cheats in an examination is cheating only himself in the final analysis)

(18.a) The dramatists of the Restoration are little esteemed today by modern readers.

(18.b) Modern readers have little esteem for the dramatists of the Restoration.

위의 예문 (14)-(17)까지는 각 항목의 (a)에서 밑줄 그은 부분이 강조되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마지막 예문 (18.a)에서는 ‘왕정복고기의 극작가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반면, (18.b)에서는 ‘현대 독자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한편 부사도 놓이는 위치에 따라 강조 표현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다. 영어의 부사는 문장 내에서 그 위치가 한 곳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비교적 자유롭다. 타동사와 목적어 사이에 끼여서는 안 된다는 규칙을 제외하면⁵⁾, 문장 앞, 문장 중간, 문장 끝으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부사는 아래 예문 (19)에서처럼 자신이 수식하는 단어(동사, 형용사, 부사) 앞에

5) 예컨대 ‘It disturbed evidently her.’라고 하지 않고 ‘It evidently disturbed her.’라고 해야 한다.

놓인다.

(19) He slowly opened the door.

이러한 경우의 부사는 단순히 동사를 수식하고 있고, 아무런 강조의 역할이 없다. 따라서 수식을 받는 동사 ‘open’이 가장 강하게 발음되며, ‘What did he do?’라는 의문문이 배경에 깔려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나 그 부사를 특별히 강조해서 독자의 눈길을 끌거나 그 뒤에 이어지는 동작을 예고하는 경우, 다시 말해서 장면 설정의 역할을 수행하고 싶은 경우에는 아래 예문 (20)에서처럼 부사를 문장 머리에 놓는다.

(21) Slowly, he opened the door.

이 경우에는 ‘slowly’가 가장 강하게 발음된다. 이 경우에는 ‘Slowly, what did he do?’라는 의문문이 전제로 깔려 있다고 생각하면 좋다.⁶⁾

반면에 아래 예문 (22)에서처럼 부사를 문장 끝에 놓으면 방금 말한 동작에 어떤 추가 정보를 덧붙이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⁷⁾

(22) He opened the door slowly.

이때는 ‘door’와 ‘slowly’ 사이에 쉼표가 있는 것처럼 잠깐 생각하듯이 발음하는데, 역시 ‘slowly’를 가장 강하게 발음한다. 그리고 이때는 ‘How did he open the door?’라는 의문문이 전제로 깔려 있다고 생각하면 좋다.

또한 다음 예문 (23.a)에서처럼 타동사 ‘opened’와 목적어 ‘the door’ 사이에 부사 ‘slowly’를 끼워넣으면 안 되지만, (23.b)에서처럼 모종의 특수한 효과를 위해서 앞뒤에 쉼표를 찍어 호흡을 조절한 다음, 이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기대와 불안과 전율을 독자에게 주기도 한다. 말하자면 도대체 무엇을 열었을까 하고 잠깐 생각할 겨를을 독자에게 주기 위해서 타동사와 목적어 사이

6) 따라서 이 경우에는 우리말로 옮길 때도 ‘조심조심 그는 문을 열었다.’ 정도로 문두의 부사를 두드러지게 부각시키는 장치를 마련해주어야 할 것이다.

7) 우리말로 옮기면 ‘그는 문을 열었다. 천천히, 천천히!’ 정도가 될 것이다.

에 부사를 끼워넣는 일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말 그대로 지극히 ‘특수한’ 기법이다.⁸⁾

(23.a) He opened slowly the door. (*)

(23.b) He opened, very slowly, the most amazing book I had ever seem.

마지막으로 산렬문(loose Sentence) 속에 도미문(periodic sentence)을 섞어서 독자들의 눈에 띄게 하는 방법이 있다. 산렬문이란 문장의 주제가 앞에 나오고 그 밖의 설명 부분과 수식 부분이 뒤에 자리잡는 문장을 말한다.⁹⁾ 따라서 문장을 중간에 잘라도 문장의 뜻이 성립한다. 언어란 원래 머릿속에 생각이 떠오른 순서대로 표현하는 것이므로 핵심 정보가 앞에 나오는 문형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글은 대개 산렬문으로 이루어진다. 반면에 도미문이란 문장의 핵심 정보가 문장 끝에 놓이고, 따라서 마침표(period)가 찍힐 때까지 문장의 온전한 뜻이 완결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독자의 긴장과 호기심을 마지막까지 잡아두기에 효과적이다. 도미문은 수식구가 많고, 종속절을 포함해서 복잡한 입체 구조를 이루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필자가 심혈을 기울여 구성한 문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강조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아래 예문 (24)를 보자.

(24.a) Poor Tom sat there, his face almost hidden in his big coat.

(24.b) There, his face almost hidden in his big coat, sat poor Tom.

위의 예문에서 (24.a)는 산렬문이므로 문장의 전반부(‘Poor Tom sat there’)만으로도 문장의 핵심적인 뜻이 드러나는 데 지장이 없다. 반면에 (24.b)는 도미문이므로 마침표가 나올 때까지 읽어야 비로소 문장의 뜻이 온전하게 드러난다.

24. 장형(長型) 표현의 도입에 의한 강조

8) 예문 (18.b)를 우리말로 옮기면 ‘그가 조심조심 연 것이 무엇이었나 하면, 바로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놀라운 책이었다.’ 정도가 될 것이다.

9) 이는 물론 영어의 경우를 두고 일반화한 이론이다.

일상적인 표현 이상으로 길이를 늘인 표현에서도 일종의 강조 효과를 간취해낼 수 있다.¹⁰⁾ 아래 예문 (25)도 사실상 ‘Thank you.’와 같은 뜻이지만, 그 의미가 훨씬 강조되어 있다. 다음의 예문 (26)에서도 부사(‘just’)가 덧붙여가서 목적(‘...하러’)의 의미가 강조되고 있다.

(25) I don't know how to thank you enough.

(26) I kept talking to Mary just to attract her attention.

25. 활자나 문장부호에 의한 강조

문어(written language)에는 구어(spoken language)에 없는 장점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시각적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장치를 도입할 수 있다는 점이다.

우선 다른 부분의 활자보다 조금 큰 활자를 쓰거나 강조하고 싶은 특정한 단어의 머리글자를 대문자로 써서 독자의 주의를 끄는 방법이 가능하다.

(27) ‘Ever since Mary left without a Word of Warning, everything has gone wrong’ said Mrs. Banks.

다음으로 강조 부분을 이탤릭체로 인쇄하는 경우도 있다.

(28) I was *born* here. I went to *school* here. And I've been *run* over here-*twice*, and on the same damn *street*.

물론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에 강조를 나타내는 문장부호(!)를 찍는 방법도 가능하다. 일반적인 감탄문이 여기에 해당한다. 아래 예문 (29)처럼 이런 경우에는 문장 전체가 강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9) How lucky you are!

10) 이와 같은 장형 표현은 정중한 어조에도 사용된다.

26. 기타

마지막으로 일견 미세하게 보이는 형식의 차이가 강조하는 내용의 차이를 유발하는 용례를 몇 가지 들면서 강조 표현의 제반 양상을 확인해보는 작업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아래 예문을 보자.

(30.a) I saw him run.

(30.b) I saw him running.

위의 예문에서 (30.a)는 ‘달린다’는 동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반면, (30.b)는 ‘그’라는 인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¹¹⁾ 다음의 예문 (31)도 ‘사람’이 중심인가 ‘동작’이 중심인가 하는 문제가 되는 영어 구문의 대표적인 용례라고 할 수 있다.

(31.a) I heard him talk.

(31.b) I heard him talking.

위의 예문은 ‘-가...하는 것을 듣다’의 뜻을 갖는 구문인데, 위에서 보듯이 ‘to hear somebody + 원형 동사’ 형식과 ‘to hear somebody + 동사-ing’ 형식의 두 가지 표현 방법이 있다. 대략적인 의미는 동일하지만 어감은 다르다. 다시 말해서 원형 동사 형식인 (31.a)에서는 ‘무엇을 하다’라는 ‘동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반면, 분사(‘-ing’) 형식인 (31.b)에서는 ‘누가’라는 ‘사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다음의 예문 (32)도 마찬가지로 어감의 차이를 정리해볼 수 있다.

(32.a) I heard his singing.

(32.b) I heard him singing.

11) 여기서 말하는 ‘초점’(focus)이란 본고의 주제인 ‘강조’(emphasis)와 유사한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초점이 놓이는 어사는 통보기능량(communicative dynamism)이 높기 때문에 문장의 나머지 요소들에 비해 강조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의 예문에서 소유격 형식이 쓰인 (32.a)에서는 ‘동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목적격 형식이 쓰인 (32.b)에서는 ‘사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¹²⁾ 이것은 마치 우리말에서 ‘코끼리~~가~~ 코가 길다’라고 하면 ‘코끼리’에 초점이 놓이고, ‘코끼리는 코가 길다’라고 하면 ‘코’에 초점이 놓이는 양상과 유사하다.¹³⁾

3. 강조 표현의 번역

앞서도 언급했듯이, 영어 원문에 드러나 있는 강조 표현은 우리말 번역에서도 가능한 한 강조의 효과를 십분 살려주어야 좋은 번역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영어와 국어는 상이한 언어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어 원문의 강조 표현이 국어 번역문에 일 대 일로 온전하게 반영되기란 이미 선형적으로 대단히 힘든 일에 가깝다. 여기서는 문장의 집합인 텍스트의 차원을 대상으로 강조 표현의 번역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다.

문장 차원에서 강조 표현과 관련된 번역 문제는 어떤 이론이나 법칙을 수립하기보다, 구체적인 자료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지극히 원론적인 논의만을 할 수 있다. 즉, 원문에 나타난 강조 표현을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 번역문에서도 강조 표현에 담긴 원문 필자의 의도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모국어 표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상식적인 진술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¹⁴⁾(우리는 앞서 영어의 다양한 강조 표현을 문장 차원에서 다룬 바 있다. 후술되는 3. 4절에서 이를 실제 텍스트로 삼아서 강조와 관련된 번역 기법을 정리해보기로 한다).

12) 따라서 ‘Do you mind my asking a question?’(=Do you have any objection to my asking a question?)는 ‘질문을 해도 됩니까?’가 되고, ‘Do you mind me asking a question?’(=Do you have any objection to me asking a question?)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질문해도 좋습니까?’가 된다.

13) 우리말에서는 일반적으로 명사에 주격조사(‘이/가’)가 결합하면, 이른바 배타적 지정(exclusive designation)이 되어 결합된 명사에 초점이 놓이게 된다. 반면에, 명사에 주제를 표시하는 보조사(‘-은/는’)가 결합하면, 결합된 명사가 주제(topic)가 되어 그 나머지 부분(comment)에 초점이 놓이게 된다.

14) 그러므로 문장 차원과 관련된 강조 표현의 번역 문제는 번역 자체보다 원문에 잠재된 강조 표현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3.1. 문장 배열 순서의 변화

글의 최소 단위는 단락(paragraph)이며, 이 단락은 일정한 수의 문장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영어와 국어는 동일한 사건이나 개념을 진술할 때 서로 다른 전개 방식을 사용하므로, 영어를 국어로 옮길 때 단락 안의 문장 배열 순서가 달라지게 된다. 예컨대 영어에는 단락의 첫 문장에 주제가 담기게 되는데 반해서, 같은 내용을 국어로 서술한다면 단락의 마지막 문장에 주제가 담기게 된다는 것이다. 아래 예문을 보자.¹⁵⁾

(33.a) 슬그머니 들어와서 자고 있었나 하는 의심이 들어 잠자리를 둘러보면서 베개 옆의 시계를 집어들었더니 고작 여섯시 반이었다.

(33.b) I glanced around the room, wondering if she had come in the night without my knowing it. I picked up the watch beside his pillow. It was only six-thirty.

(34.a) 그러나 안집 애하곤 될 수 있는 대로 놀지 말아라. 개가 먼저 놀자고 하면 놀아주되 이 쪽에서 먼저 놀자고 해선 안 된다. 안집 애하고 싸우면 안 된다. 개가 먼저 때리면 잘못된 거 없더라도 맞고만 있어야 한다. 안집 애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 부러워하는 눈칠 보여서도 안 된다. 쳐다보지도 말아라. 안집 애가 군것질을 할 때도 쳐다봐선 안 된다. 이런 엄마의 주문을 순순히 다 들어줄 순 없었다.

(34.b) But I couldn't pay attention to all of Mother's orders. Don't play with the landlord's daughter if possible. Of course, you should play with her if she asks first, but don't even ask her to play with you. Don't fight with her. If she hits you, don't hit back, even if you didn't do anything wrong. When she plays with a toy, don't show any interest. Don't even look at her. When she eats snacks, don't look at her.

위의 두 예문 (33)과 (34)에서 영문 원문과 국문 번역문을 비교해보면, 양쪽 언어에서 표현 순서의 차이가 얼마나 큰가를 곧 알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국

15) 예문 (34)는 유영남(1991:40)에서 인용한 것이다.

어의 어순을 그대로 영어로 옮겨놓거나, 영어의 어순을 국어로 그대로 옮겨놓으면 대단히 어색한 글이 되고 만다는 뜻이다.

국어에서는 먼저 주변 상황을 길게 설명하고 이야기를 서서히 전개시키다가 맨 마지막에 가서야 ‘따라서 무엇이든 무엇이다.’라는 식으로 핵심을 드러낸다. 이것이 일반적인 국어의 문장 전개 방식이다. 그러나 영어에서는 ‘무엇은 무엇이다.’라는 식으로 일단 분명하게 핵심을 드러내고 나서,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 ‘왜냐하면’의 형태로 구체적이고 상세한 보충 설명을 덧붙인다. 그렇게 해서 먼저 꺼낸 핵심 주제에 살을 붙이고 옷을 입혀서 상대방에게 자신의 생각을 이해시킨다. 이것이 영어의 일반적인 문장 전개 방식이다.

따라서 원작의 문장 배열에 집착해서 단락 안에서 영문 원문의 배열 순서를 그대로 지켜서 번역하면 우리말 문장이 부자연스러워지는 일이 많기 때문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만일 이와 같은 단락 내부의 문장 배열 순서 변화를 번역 과정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면, 원문에 담긴 필자의 강조 의도를 온전하게 드러낼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그러한 번역은 좋은 번역이라고 할 수 없다.

엄격하게 말한다면 텍스트 차원의 문제는 아니지만, 대등한 절이 연결된 문장을 대상으로 이 문제를 잠시 살펴보기로 한다. 아래 예문을 보자.

(35.a) Man has hardly advanced in moral fortitude, though it has advanced in many other ways.

(35.b) Man has advanced in many other ways, but it has hardly advanced in moral fortitude.

영어에서는 동일한 구성이 둘 이상 나올 때, 문장 끝이 문장 앞보다 상대적으로 강조되는 위치이다. 예를 들면 ‘인간이 도덕성이라는 측면에서 거의 진보를 이룩하지 못했다’는 내용을 강조하고 싶다면, (35.a)처럼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문장의 앞에 두어서 표현하기보다 (35.b)처럼 문장의 끝에 두어서 표현해야 한다. 그래야만 ‘과학과 기술 등 다른 분야에서는 인류가 크게 진보했을지 모르지만, 도덕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거의 진보하지 못했다’고 하는 필자의 원래 의도가 온전하게 드러나게 된다. 그러므로 (35.b)와 같은 영문을 우리말로 옮길 때는 후행절에 초점이 놓여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여기에 강조의 부사나 보조사 등을 배치해서 원문의 강조 의도를 살려주어야 한다.

3.2. 발상의 전환

번역 작업을 진행하다 보면, 언어에 따라서 동일한 내용을 정반대로 표현하는 경우를 발견하기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표면적인 원문의 표현 양상에 지나치게 얽매었다 보면, 원문 필자의 강조 의도를 놓쳐버리는 수가 많다. 이러한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번역자는 항상 자유로운 발상을 전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아래 예문을 보자.

(36.a) 'Are you all right?'

(36.b) '어디 안 좋으세요?'

(37.a) 'Keep the soup warm.'

(37.b) '수프를 데워주지 않을래?'

(38.a) 'Say the truth.'

(38.b) '거짓말하지 마.'

위의 예문 (36)-(38)은 모두 같은 내용을 전달하면서 영미인과 우리나라 사람이 서로 반대 표현을 쓰는 경우를 잘 보여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어떤 영문을 우리말로 옮길 때 표현 형식을 그대로 살리려면 문장이 어색해지거나 원문의 의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¹⁶⁾, 발상을 바꿔서 반대 표현으로, 예컨대 수동형과 능동형, 긍정형과 부정형을 서로 전환시켜 옮기면 자연스러운 우리말이 된다는 것이다. 이는 분명히 원문에 담긴 강조의 의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다. 다음에 긍정문을 부정문으로 옮긴 몇 가지 용례를 더 들어보기로 한다.

(39.a) It must be well remembered.

(39.b)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40.a) He has yet to make 35 dollars a week.

(40.b) 주급이 아직 35달러도 안 된다.

16) '강조'도 원문 필자의 의도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3.3. 기타

의미상으로 병렬 관계에 있는 부분은 동일한 표현 형식으로 옮겨야 병렬 관계가 제대로 드러날 수 있다. 원문에 병렬 형식이 존재한다면, 이는 원문 필자의 강조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번역문에서도 동일한 표현 형식으로 옮기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아래 예문에 이러한 사정이 잘 나타나 있다.

(41.a) Do not climb up the tree or break the branches.

(42.b) 나무에 오르지도 말고 가지를 꺾지도 마라.

한편 앞서 3.5절에서 다루었던 ‘활자와 문장부호에 의한 강조 표현’은 우리말 번역에서도 어느 정도 같은 방식으로 반영해줄 수 있다.

3.4. 강조 표현의 실전 번역 기법

여기서는 문장 차원의 강조 표현을 우리말 번역에서 살리는 구체적인 번역 기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영어 원문 자료는 앞서 제2장에서 다루었던 문장을 활용하기로 한다. 자료는 원문과 번역문의 순서로 제시하는데, 원문과 번역문에서 강조된 부분은 밑줄을 그어 표시하게 된다.¹⁷⁾

(43.a) It's you that I want to talk with.

(43.b) 바로 너야, 내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사람은.

(44.a) To most people Mary is a beautiful girl.

(44.b) 누구 눈으로 봐도 메리는 정말 아름다운 아가씨라네.

(45.a) We shall fight in land, we shall fight on the seas, we shall fight in the air, and we shall win.

(45.b) 육지든 바다든 하늘이든, 우리는 어디서든 싸울 것이며, 또 싸워서 이길 것이다.

17) 단 예문 (54)만큼은 강조된 부분이 이탤릭체로 표시되어 있다.

- (46.a) Him they elected their president.
 (46.b) 바로 그 사람을 회장으로 선임했다.
- (47.a) Deceit or treachery he would never forgive.
 (47.b) 사기가 되었던 배신이 되었던 그는 절대 용서할 사람이 아니다.
- (48.a) Through the valley flowed a winding stream.
 (48.b) 계곡을 굽돌아 사행천(蛇行川)이 흐르고 있었다.
- (49.a) The student who cheats in an examination is, in the final analysis, cheating only himself.
 (49.b)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는 학생은 결국에 백발백중 자기를 속이는 꼴밖에 안 된다.
- (50.a) He opened, very slowly, the most amazing book I had ever seen.
 (50.b) 그가 조심조심 연 것이 무엇이었나 하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놀라운 책이었다.
- (51.a) I don't know how to thank you enough.
 (51.b)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올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52.a) I kept talking to Eunji just to attract her attention.
 (52.b) 나는 은지에게 계속 말을 했다. 오로지 관심을 끌고 싶었기에.
- (53.a) Ever since Mary left without a Word of Warning, everything has gone wrong.
 (53.b) 전혀 ‘아무런 통고’도 없이 메리가 손을 떼 뒤부터 모든 일이 엉망이 되었다.¹⁸⁾
- (54.a) I was *born* here. I went to *school* here. And I've been *run* over here-*twice*, and on the same damn *street*.
 (54.b)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학교도 다녔는데, 그러고도 모자라서 그 망할 놈의 같은 거리에서 두 번씩이나 차에 치였다니!

18) 여기서는 작은따옴표를 사용해서 강조의 표현을 반영했는데, 이 부분을 굵은 활자로 처리한다든가 이탤릭체로 처리할 수도 있을 것이다.

4. 맺음말

모든 글에는 반드시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 있으며, 이러한 핵심 내용은 글의 표면에 강조의 형태를 띠고 나타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번역자는 번역 작업을 진행하면서 원문의 강조 표현을 제대로 파악한 다음에 번역문에서 이를 온전하게 드러내도록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본고에서는 실무 번역의 관점에서 영어 원문에 담겨 있는 강조 표현의 제반 양상을 확인해본 다음, 이를 우리말 번역에 온전하게 살려낼 수 있는 번역 기법을 점검해 보았다.

영어 문어에서 강조 표현으로 흔히 사용되는 방식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분류해볼 수 있었다.

- (가) 통사론적 요소에 의한 강조
- (나) 형태론적 요소에 의한 강조
- (다) (단어 배열) 어순에 의한 강조
- (라) 장형 표현에 의한 강조
- (마) 활자나 문장부호에 의한 강조

강조 표현의 번역은 크게 문장 차원과 텍스트 차원으로 나누어서 생각해볼 수 있다. 전자에 대해서는 어떤 이론이나 법칙을 수립하기보다, 구체적인 자료에 따라 그때그때 처리할 수밖에 없다. 즉, 원문에 나타난 강조 표현을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 번역문에서도 강조 표현에 담긴 원문 필자의 의도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모국어 표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정도의 논의만이 현재로서는 최상의 결론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후자에 대해서는 두 가지 중요한 문제, 즉 단락 안의 문장 배열 순서 변화 문제와 발상의 전환에 입각한 자유로운 표현의 문제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¹⁹⁾

19) 현장에서 작업하는 번역자들이 흔히 ‘뒤집어서 옮기기’라고 부르는 번역의 기법이

참고문헌

- 강수언, 『한국어와 영어의 비교 연구』, 한신문화사, 1989.
- 국립국어연구원, 『번역 출판물의 오역에 관한 기초적 연구』(비매품), 1993.
- 국어연구소, 『국어생활 21』(여름), <번역 특집>, 1990.
- 김원식, 『“번역과 번역학 언어학적 고찰” 통역대학원 논문집 1』(외대), 1985.
- 김정우, 『영어를 우리말처럼 우리말을 영어처럼(이론편, 실제편)』, 창문사, 1996.
- 김정우, 『이솝우화와 함께 떠나는 번역 여행』, (1권, 2권, 3권), 창해, 2000.
- 김정우, 『“영-한 번역과 비언어적 문맥의 처리” 번역학 연구 2-2』, 한국번역학회, 2001.
- 송요인, *Translation: Theory and Practice*, 동국대학교 출판부(英文), 1975.
- 안정효, 『번역의 테크닉(‘영어 길들이기’로 改題)』, 현암사, 1996.
- 유영난, 『번역이란 무엇인가』, 태학사, 1991.
- 전성기, 『불한 번역 대조 분석』, 어문학사, 1996.
- 최정화, 『번역과 통역을 제대로 하려면』, 신론사, 1994.
- 홍기만, 『TV 외화 번역의 세계』, 방송소프트, 1992.
- 황찬호, 『“외국어식 구문” 국어생활 14』, 국어연구소, 1988.

K C I

A Study on Translation Techniques of Emphatic Expressions from English into Korean

Kim, Jeong-Woo
(Kyungnam University)

The core meaning an author intends to deliver to readers is expressed in the form of 'emphatics' in written material. As such, an ambitious translator should pay heed to the emphatic expressions to precisely reproduce the author's intentions in target languages. In this paper I have ascertained various aspects of emphatic expressions in English, the source language, to develop related translation techniques that help English-into-Korean translators. In English, emphasis can be conveyed in the following four ways:

- (a) Emphasis by means of syntactic device
- (b) Emphasis by means of morphological device
- (c) Emphasis by means of change of word order in a sentence
- (d) Emphasis by means of longer form
- (e) Emphasis by means of typography and punctuation marks

The translation of emphatic expressions could be viewed from two standpoints; sentence level and text level. With regard to the former, the translator must tackle each emphatic expression faithfully in connection with the source materials, case by case, instead of applying any theories or rules. For the latter, one should take two important aspects into consideration; the change of sentence order in a paragraph and the free mastery of the translator's target language on the basis of the reversal of thought.